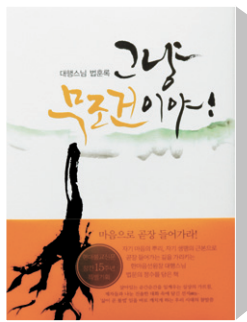


주인공 만나려면 무조건 믿고 맡겨라

대행 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현대불교 15주년 기획 출판



스님들의 법 어집은 읽기가 지루하다는 편견을 버려라. 용어가 어렵고 논리구조가 복잡하다는 지루함도 털어내라. 이제 법어집은 쉽고 간결하면서도 깔끔한 편집으로 오랫동안 가르침을 되새기게 한다.

최근 현대불교신문사가 창간 15주년을 기념해 한가람선원 출판부와 함께 제작한 대행 스님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는 시처럼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법훈록이란 법회 등에서 설한 법문과 일상 속에서 제자들에게 전한 가르침들을 모은 책이란 의미다.

대행 스님은 언제나 일체의 경계를 돌로 보지 말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을 통해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가르침이 마음공부, 진짜 사람, 주인공, 인과, 주처, 과거와 미래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펼쳐진다.

무엇보다 대행 스님이 일상 속에서 제자들에게 자상하게 일깨워 준 가르침들이 현장감 있게 수록되어 있어 흥미롭다. 예를 들어, 승려

의 마음가집을 이야기 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승려는 먼저 존경받고자 하기에 앞서 신도에 혹 어려움이 없는지를 묻고 살피며 함께 걱정해 주고 하소연을 들어주며 더러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감싸주고 이면에서 들은 말을 저편으로 옮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다보면 그 중에는 승려를 공경하는 신도도 있을 터이나 그런 승려는 그 공경에도 빠지지 않는다."

이런 일화도 소개되고 있다. 대행 스님이 공양(식사)을 조금 하시는 것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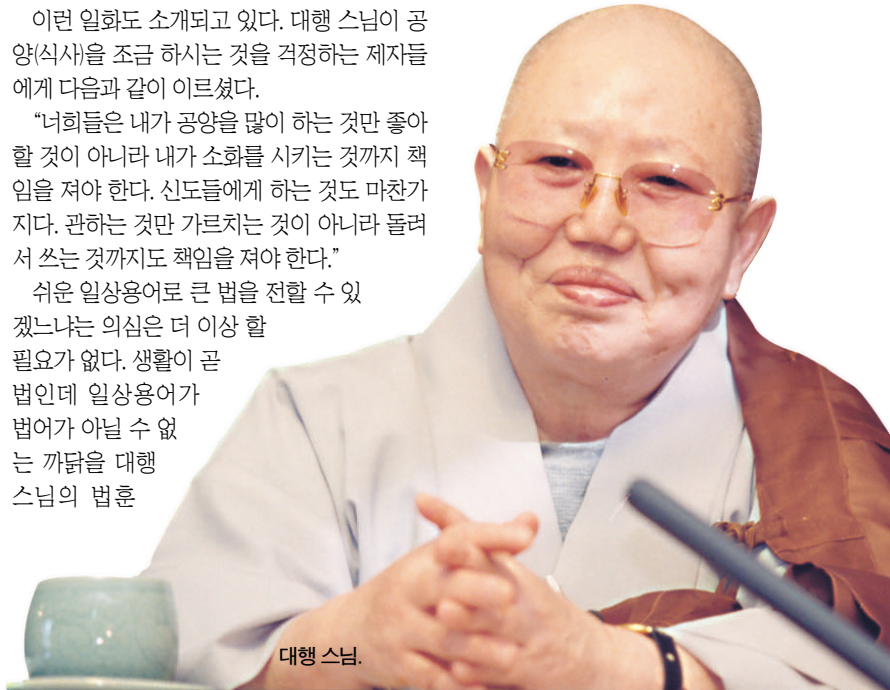
"너희들은 내가 공양을 많이 하는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소화를 시키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신도들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관하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쓰는 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

쉬운 일상용어로 큰 법을 전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생활이 곧 법인데 일상용어가 법어가 아닐 수 없는 까닭을 대행 스님의 법훈

록 <그냥, 무조건이야>는 강하게 일깨우고 있다. 참된 법은 분별하고 따지는데 있지 않다. 진정한 자신의 주인공도 욕심내고 집착하는 데서는 찾을 수 없다. 말과 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자신을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공부의 자세일 뿐이다.

그냥, 무조건이야 | 대행스님 지음 | 한가람선원 출판부 역임 | 1만1000원

임연태 기자



대행 스님.

시인과 스님, 하나의 길로 걷다

도법 스님 · 김용택 시인, 희망의 삶을 말하다

"두 분이 길을 걷다. 소박하고 청정한 삶의 길로 걸어간다. 시인과 스님. 그 다른 삶의 길이 실상 하나의 길이다. 이상과 현실, 명상과 실천이 겹치는 길이다. 시(詩)와 선(禪) 속에서 우리 모두의 삶조차 향기롭게 만드는 길이다.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도법 스님과 김용택 시인의 처절한 삶의 여정에서 우리 시대의 평화와 생명, 환경의 미래를 묻는 <시인과 스님, 삶을 말하다>에디치미디어에는 우리가 따라 걷고 싶은 아름다운 사람의 길이 보인다. 이 책에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회두를 안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60여 년 동안 정진해온 도법 스님의 안목과 김용택 문학세계의 원천과 궤적이 담겨 있다. 스님의 죽비처럼 서늘한 말솜과 삶을 들려주는 시인의 절제되고 구수한 입담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깨어진 세상(broken world)'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온다.

스님과 시인의 대담과 삶의 이야기를 정리한 정용선 경원대 강사는 두 사람을 만난 느낌을 이렇게 적고 있다.

"인생의 고비길마다 겪은 절망과 처절한 외로움 속에



서도 결코 희망의 빛을 잃지 않았던 시인과 스님의 삶에서, 오늘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 못 생명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구도정진(求道精進)하며 살아온 시인과 스님의 삶이 이렇듯 우리들 앞에 웃음이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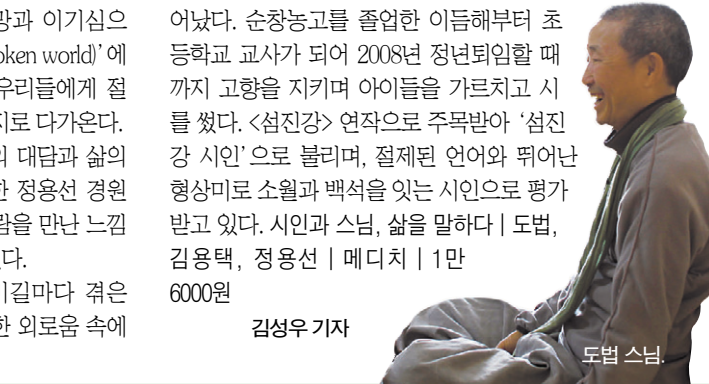
도법 스님은 제주에서 태어나 18세에 금산사로 출가했다. 불암사와 송광사 등 제방선원에서 10여 년간 수행했으며, 결사도인인 '선우도량'을 만들어 청정불교 운동을 이끌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실상사 주지로서 '귀농학교'와 '작은학교'를 열었고, '인도라망 생명공동체운동'을 펼쳤다. 94년부터 조계종 개혁운동에 나섰으며, 2004년에는 '생명평화 탁발순례길'에 올라 지금도 길 위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김용택 시인은 전북 임실 진매마을에서 태어났다. 순창농고를 졸업한 이듬해부터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2008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고향을 지키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시를 썼다. <삼진강> 연작으로 주목받아 '삼진강 시인'으로 불리며, 절제된 언어와 뛰어난 형상미로 소회와 백색을 잇는 시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시인과 스님, 삶을 말하다 | 도법, 김용택, 정용선 | 에디치 | 1만 6000원

김성우 기자



김용택 시인



도법 스님

"산촌에선 마음의 감옥 문이 슬며시 열린다"

박원식 수필가, 우리나라 산골에 감탄 · 애정 담아내

"산촌이 간직한 대자연은 여저런 예술의 전당이자 구원의 법당이 아닐까. 산촌에 이르면 욕망으로 가득한 내 마음의 감옥 문이 슬며시 열린다."

산을 좋아하는 산 사람이자 자연주의 에세이스트로 이름 높은 박원식 작가가 펴낸 <산촌 여행의 황홀>(정해)에 나오는 한 부분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마음 망둥이 해방시키기"는 불가의 고매한 참선처럼 화두를 듣거나 가부좌를 할 필요조차 없이 취향대로 실컷 마음의 자유를 구가하는 '사업'이라며, 산촌 여행이 망둥이처럼 날뛰는 번뇌망상을 잠재우는 훌륭한 수행방편이라고 말한다.



"널리 소문났다고 마음이라는 물건은 요물이다. 이 발칙한 망둥이가 산촌에 이르러선 양처럼 순해진다. 낮잠처럼 태평해지면 보름달처럼 충만해진다. 일상의 감옥에 갇혔던 망둥이가 산길은 벽촌에 이르러 특별사면 된다. 산촌이라는 해방구 안에서 모처럼 쾌재를 부른다. 그렇게 되면 마음 기슭에 둥이 튼다. 숨죽였던 의식들이 봄날의 진달래처럼 만개한다."

<산촌 여행의 황홀>은 수많은 도시민들의 로망을 담은 두메 산골의 자연과 사람에 대한 예찬이라 할만하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오지'의 산골짜기를 맨발로 걷고, 손으로 어루만지고, 코로

한껏 들이마시고, 눈으로 사진 촬영하듯 써 내려간 예시에 모음이다.

한 길을 한 걸음 여행길을 걷듯, 한 문장 한 문장 우리나라 산골에 대한 감탄과 애정을 고스란히 담아 보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그 길을 걷는 것보다 더욱 감동적으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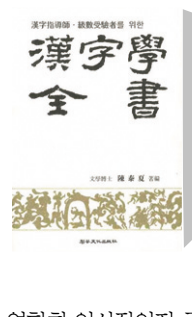
"나는 어디든 멀리 떠나리/ 마치 방랑자처럼/ 자연과 더불어/ 연인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가슴 벅차게."

책을 따라 산촌이 간직한 대자연으로 들어가 산과 물, 구름을 보면서 본래 마음을 밝혀보자 [見色明心]... 이는 그대로가 한마음을 깨달을 때까지...

산촌 여행의 황홀 | 박원식 지음 | 창해 | 1만 7000원

김성우 기자

지성인이 되는 길잡이 '한자학 전서' 출간



21세기를 맞아 부상하는 한자문화권. 우리나라 차세대들이 동북아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동년배의 중국, 일본의 젊은이들 보다 한자를 더 많이 학습해 앞서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자를 많이 알면 우리말은 물론 중국어와 일본어도 잘할 수 있으며, 국가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사)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이사장이자 국제한자진흥회의 회장인 진태하 인제대 석좌교수가 편저한 <한자어 전서(叢書)>는 한국과 대만, 홍콩에서 30여 년간 한자 교육을 한 노후자가 담긴 책. 한자를 재미있고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해 초보자에서부터 전문가까지 볼 수 있도록 했다. 1071쪽에 달하는 방대한 관련 자료도 실용적이다.

한자학 전서 | 진태하 편저 | 이화문화출판사 | 8만원

김성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는 즐거움	보경	돌
2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3	날마다 오는 집	법륜	김영사
4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5	할로 죽고 방으로 살리고	원철	초미
6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산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진	마음의 숲
7	왕초보 천수경 박사 되다	성법	민족사
8	자리산 스님들의 뜻밖에는 수행 이야기	천천, 현현	불광출판사
9	5분 수행	한담	선
10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	해담	불광출판사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3672-7181~5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초발심자경문
이 초발심자경문은 한문을 세기는 힘인 문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였다. 대원 선사님의 살아있는 수행지침도 실려 있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매일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거귀감 법문 02-3494-0122
 매일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선실 / 선문연술 031-531-8805
 매일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선실 / 선문연술 062-944-4088
 매일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 전통
조상의 열과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시은품 (휴대용 알갱이 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동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64형으로 나누어서 본 나의 체질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나의 체질을 알아야 나에게 맞는 음식, 맞는 과일, 맞는 차를 알고먹어야 병을 만들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제마의 사상의학공부를 40년 넘게 하면서 손등의 피부를 만져보면 정확한 체질을 알려드리오니 시간을 꼭 내셔서 만나보세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병은 무엇이며 현재 병증은 왜 있는지를 체질을 알면 다 알수있기에 궁급하신 분, 사는 동안은 아프지 않고 살고 싶은 분은 찾아주세요

현재 병증이 나오면 한약치료 처방을 해주는데 드셔보면 5일안에 변화를 본인이 느낍니다

아토피 피부병은 바로완치됩니다

스님들께는 건강한 몸으로 수행하시라고 모든 특혜를 드립니다

상담연락처 011-9373-3778